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앞: 리우데자네이루의 사브리나 레이스(왼쪽)가
노숙자 보호소의 한 청소년을 방문하고 있다.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안다라이
스테이크 보타포고 와드 청년들.(사진 촬영:
바바라 진 존스)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주님의 등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6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 18 그리스도의 영: 어둠 속의 빛 다니엘 케이 저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수입 내에서 생활하라
- 26 말일성도의 소리: "모든 은사에 대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날아오르는 의지 조지 플로어스
"가서 웬디를 확인해라" 달린 조이 니콜스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강해졌다 일라이자 엠 토레스
잃어버린 소책자 웨세슬라오 살구어로
- 32 더 나은 가정의 밤 만들기
- 34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48 2001년도 5월호 리아호나 활용하기

청소년란

- 8 성찬을 전달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웨인 비 린
- 10 리우에서 내민 손길 바바라 진 존스
- 23 마이클이 남긴 쪽지 커밀 콜 타벳
- 24 포스터: 벼랑 끝에 살지 마십시오
- 44 함께 끌어 주며 데인 엠 멀린
- 47 변함없는 나의 친구 베키 프레스코트

친구들(별책 부록)

- 2 함께 나누는 시간: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다이앤 에스 니콜스
- 4 이야기: 약속한 대로 하면 티 에스 헤팅어
- 7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기: "포기하면 안돼" 사르린 저메인 메이어
- 8 포스터: 여러분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십시오
- 10 친구가 친구에게: 린 지 로빈스 장로
- 12 신약 성서 이야기: 걸지 못하는 사람; 산상 수훈

18쪽 참조



2쪽 참조



34쪽 참조



24쪽 참조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제5호

21985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핑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킵,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켄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엠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말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케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캄펜

신인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캐리 에이 코치, 데니즈 커비, 엘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클라우디아 이 와너

디자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락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422호, 제 38권, 제 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1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왕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한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셜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아티어, 헝가리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May 2001 No.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애독자 편지



참사의 신앙

저는 이전에 리아호나(스페인어판)와 같이 유익하고 교훈적인 출판물을 읽어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책 읽는 데 별 관심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리아호나를 읽기 시작했을 때에도 저는 이 책에서, 경전 구절을 탐구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내용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해 줄 어떤 내용을 찾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호 리아호나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에이치 부루스 스투키 장로님이 하신 말씀, "참사의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확신"은 저의 삶에 참으로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로 인해 저는 경전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선교사 덕분에 저는 진리를 찾았고 이제 침례 받을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선교사들을 준비해주시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알렉시 안토니오 로페즈 로페즈

엘살바도르 산 미구엘 스테이크

오리엔탈 와드

주: 로페즈 형제는 이 편지를 쓴 얼마 후인

2000년 3월 18일에 침례 받았습니다.

선교 사업의 성공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의 주님의 사업은 몇몇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

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제 동반자는 실비에 자매님 댁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후에 우리는 그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교회 이름을 물었고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차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가 찾아왔던 교회예요. 저한테 낯은 물론경이 있어요. 그 중의 몇 페이지는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을 찾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3주 후에 안토니에 형제님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에게로 인도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영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마홍고 루핀 장로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선교부

주님의 속죄는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줍니다

매 달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받을 때마다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기사와 말씀들을 읽고 속고 하면서 그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잡지는 시련을 겪는 동안 저를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의 회원이 아닌 친구들에게 리아호나를 구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제가 회원이 된 지 2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구세주의 속죄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면 저는 항상 교화됩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분의 모범은 제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변화하고 일하도록 동기를 줍니다.

베르타 바레아 데 플리도

컬럼비아 보고타 케네디 스테이크

케네디 제1와드



주님의 등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보좌



주님의 등대를 바라보십시오.
너무 짙은 안개도 없으며,
너무 캄캄한 밤도 없고,
너무 강한 강풍도 없으며,
등대 불빛이 구조하지 못할 정도로
길을 잃은 선원도 없습니다.

교회의 젊은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집단이며 선택된 세대입니다. 여러분을 보
면 시인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의 시구가 생각납니다.

젊음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찬란히 빛나는 것인가.
환상과 열망과 꿈과 함께!
온갖 시작이 담긴 책, 끝이 없는 이야기.
아가씨마다 주인공이라네, 사나이마다 친구라네!¹

20년 전만해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이 지상 생활로의 여행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처소는 하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영
원한 복지에 관심을 가진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 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구
체적으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침내, 진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상 생활이 필
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신뢰와 격려의 말
을 들었을 것이며, 전세의 생활을 졸업하고 지상 생활로의 여행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은 지상의 집으
로 온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

이 단락을 편집한 사람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입니다. 이 단락을 편집한 사람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입니다.

리를 친절하게 돌보아 주셨고 자애롭게 안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새로 탄생한 아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지구로 막 내려 온, 사랑스럽게 핀 인류의 새로운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²

그 첫 몇 년은 소중한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 무죄합니다. 이 시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곧 우리는 사람들이 “끔찍한 10대”라고 말하는 기간으로 들어 갑니다. 저는 오히려 “끔찍한 멋진 10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기회의 시간이며, 성장의 계절이며, 개발의 학기입니까? 이 시기의 특색은 지식의 획득과 진리의 추구입니다.

아무도 이 기간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기간은 점점 더 힘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안전한 정박지와 평화로운 항구로부터 미끄러져 나가 표류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유 방임, 부도덕, 외설 문학,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의 바다에 빠지고, 잃어버린 기회, 박탈당한 축복, 산산이 부숩진 꿈이라는 거친 암초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근심스럽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전한 길은 없는가?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은 없는가? 위협적인 파멸로부터 탈출할 길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분명하게 울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드립니다. 주님의 등대를 바라보십시오. 너무 짙은 안개도 없으며, 너무 캄캄한 밤도 없고, 너무 강한 강풍도 없으며, 등대 불빛이 구조하지 못할 정도로 길을 잃은 선원도 없습니다. 주님의 등대가 우리를 부릅니다. “이 쪽이 안전한 길이다. 이 곳이 집으로 가는 길이다.”

주님의 등대는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될 세 가지 신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주의하여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 목적을 가지고 장래를 계획하십시오.
- 신앙으로 삶을 설계하십시오.

첫째, 주의하여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몇 년 전, 몇 개 워드와 스테이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일시적인 편리함, 깊이 없는 목표, 또는 편협한 야망을 위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원한 목표를 위해 계획하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결혼한 친구들을 둔 사람들은 대개 성전에서 결혼한 반면, 친구들이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의 영향은 부모의 영향에 필적하며 교실에서 배운 내용이나 성전과의 거리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오돈의 고전인 “큰 바위 얼굴”에서처럼,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의 특징, 태도, 심지어는 행동까지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일시적인 편리함, 깊이 없는 목표, 또는 편협한 야망을 위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원한 목표를 위해 계획하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비회원들이 그들을 교회 활동에 초대된 친구들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옵니다. 저는 1959년에 시작된, 우리 가족의 귀중한 경험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토론토에 본부가 있는 캐나다 선교부를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 앤은 우리가 캐나다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서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앤은 선교 사업을 하러 돌아 다니는 선교사를 보고는 자신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아내는 앤에게 당시 성도의 벗 어린이란 몇 부를 학급에 가져 가도록 허락해주는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앤은 그것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앤

은 물론경을 가져가서 담임 선생님인 페퍼 선생님에게 그 책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토에서 귀환한 지 여러 해가 지난 몇 년 전 어느 날,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편지함에 들어 있던 페퍼 선생님의 짧은 메모를 보고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앤에게.

“몇 해 전을 돌아보렴.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너의 학교 선생님이었던다. 그 때 네가 학교에 가져온 성도의 벗 어린이판을 보고 감명을 받았었지. 또한 네가 물론경이라는 책에 대해 그렇게 열심히 것에도 감명을 받았단다.

“나는 언젠가 솔트레이크시티에 가서 네가 왜 그런 자세로 말하고 믿었는지 알아보겠다고 결심했었어. 오늘 나는 템플 스퀘어에 있는 방문자 센터를 돌아볼 특권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다섯 살 소녀 덕분에, 나는 지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페퍼 선생님은 그 후 얼마 안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딸 앤이 자신과 오래 전에 우정을 쌓았던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하여 조단 리버 성전에서 성전 사업을 하며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둘째, 목적을 가지고 장래를 계획하십시오.

루이스 캐롤의 고전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서로 반대 쪽으로 뻗어있는 두 갈래 길의 시작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앨리스는 우연히 만난 고양이 체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그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모른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³

앨리스와는 달리 우리 모두는 각자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행로가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이 성취해야 할 운명, 살아야 할 인생, 이룩해야 할 공헌,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미래는 어느 정도 여러분의 헌신에 의해 촉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상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항상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쉽게 변하는 시류와 거짓 인기의 매력과 순간적인 흥분을 따릅니다. 그들의 행동은 팔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꾼 에서의 불행한 경험과 아주 흡사합니다.⁴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깨어진 성약, 산산이 조각난 꿈, 헛된 야망, 사라져 버린 계획,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 짓밟힌 희망, 욕구의 오용, 편협한 성격, 좌절된 인생이라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 드립니다.

그러한 늪을 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장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의 왕국의 승영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표는 한 번의 빛나는 시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의로움과, 현명한 선택의 추적, 일관된 목적을 유지한 결과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A학점과 마찬가지로, 영생의 보상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A학점은 각각의 과제물, 퀴즈, 수업, 시험, 도서실 프로젝트, 기말 논문 등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교회 공과, 기도, 데이트, 친구, 무도회, 이 모두가 인생의

각각의 교회 공과, 기도,
데이트, 친구, 무도회, 이 모두가
인생의 성적표에서 A학점을 받는 데
중요한 단계인 성전 결혼이라는
목표에 선행합니다.



성적표에서 A학점을 받는 데 중요한 단계인 성전 결혼이라는 목표에 선행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취하고 탁월해지며 완전을 향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우리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록을 깨는 것, 오늘을 어제보다 훌륭하게 사는 것,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보다 더욱 아름답게 시련을 견디는 것, 그렇게 주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주는 것, 보다 더 힘차게 일하고 더 훌륭하게 미루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는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기회들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결심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교묘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인 “미루게 하느” 뒷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2세기 전에 에드워드 영은 “미루는 것은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다.”⁵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미루는 것은 시간을 훔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즐거움을 망쳐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야망과 희망의 온전한 실현을 빼앗아 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이 기회의 날이다.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다짐으로 자신을 일깨웁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생은 경주와 매우 비슷하다고 가르쳤을 때 아마도 그는 우리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 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⁶

전도서의 저자 또한 이 주제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싫든 트랙 위에서 달려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미한 목표 지점을 보고는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큰 희생을 치루고 결국 실망과 좌절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달렸을 때 받을 상을 분명하게 보고 꾸준히 그 상을 추구합니다. 이 상, 우리가 소망하는 이 높고 귀한 목표는 다름아닌 하나님 면전에서 영생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장래를 계획할 때, 지식과 영감의 보고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셋째, 신앙으로 삶을 설계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 시대의 혼란과 양심의 충돌, 일상 생활의 소요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닻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족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은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 이 글래드스톤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밀한 바 있는 “살아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마치 주님의 등대처럼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의 외적 행위에 여러분의 내적인 확신이 반영될 때,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난 덕성과 안에 숨겨진 덕성이 결합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결합된 덕성들은 어떤 거친 풍랑도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앙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매우 사랑하셨던 사모아의 유명한 마을, 사우니아투를 방문했을 때, 제 아내와 저는 한 자리에 모인 거의 2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아름다운 이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원주민 사모아 선생님께 폐회 순서로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폐회 찬송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갑자기 이 어린이들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모임을 마친 즉시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느낌을 접어두었습니다. 폐회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해야 한다는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사에게 저의 바람을 말했고, 그는 사모아인 특유의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그는 사모아 말로, 어린이들에게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은 승낙의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는 그와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 시대의 혼란과 양심의 충돌, 일상 생활의
소요 속에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됩니다.

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교회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모아를 방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어린이들에게 만약 그들이 충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들처럼 신앙을 행사한다면, 사도님은 사우니아투의 우리 작은 마을을 방문하실 것이며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그분은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귀한 소년 소녀들이 수줍어 하며 걸어 나와서 우리에게 다정한 사모아 인사로 “탈로파 라바”라고 부드럽게 속삭일 때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깊은 신앙의 표현은 증거를 보였습니다.

신앙과 의심이 동시에 한 마음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마음의 문을 노크한다면, 생각을 교란시키는 그 회의적이고 반항심에 찬 생각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신앙과 나의 백성의 신앙과 함께 하겠다. 나는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 불가지론, 의심하는 마음이 나의 신앙의 집을 멸망시키게 하지 않겠다. 내가 창조자의 과장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성경의 기적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나는 요셉 스미스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를 믿는다. 나의 신앙은 과학을 통해 얻어지지 않았으며, 나는 이른바 과학이라는 것이 내 신앙을 죽이게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항상 신앙으로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들을 주의하여 선택하고, 목적을 가지고 장래를 계획하며, 신앙으로 삶을 설계할 때, 여러분은 성령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 주를 두려워 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 하리로다.”⁹

주님의 등대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주님의 등대가 여러분과 세계 보내 주는 안내 신호를 잘 따라서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Morituri Salutamus.”
2. 제럴드 매시, *가정 인용집*, 버튼 스티븐슨 편(1934), 121쪽.
3. Lewis Carroll, *Alice's Adventure*(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의 모험)(1992), 89쪽.
4. 창세기 25:29~34 참조.
5. In John Bartlett, *Familiar Quotations*, 14th edition (1968), 399쪽.
6. 고린도전서 9장 24절.
7. 전도서 9장 11절.
8. 니파이이사서 31장 20절.
9. 교리와 성약 76편 5~6절.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2. 어떤 사람들은 희미한 목표 지점을 보고는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큰 희생을 치르고 결국 실망과 좌절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달렸을 때 받을 상을 분명하게 보고 꾸준히 그 상을 추구합니다.
3.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의 외적 행위에 여러분의 내적 확신이 반영될 때, 어떤 거친 풍랑도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찾을 것입니다.



성찬을 전달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웨인 비 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존슨 형제 뒷자리에 앉아 머리를 푹 수그렸다. 예배당은 그리 붐비지 않았지만 집사 정원희 고문 형제님이 이렇게 뒤쪽에 앉아 있는 자신을 찾아낼 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은 채 계속 앉아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원희 회원들이 자신을 찾으면 성찬 전달을 부탁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성찬 전달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제사가 되었고 고등학교 농구 팀에서 뛰어도 될 만큼 충분히 키가 크기 때문이다. 그의 키의 절반 밖에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열두 살짜리 집사들과 함께 예배당 앞에 서는 것이 창피했다.

그의 아버지는 단 위에서 데이비드를 지켜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집사들을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누가 그에게 부탁도 하기 전에 헨슬리 형제가 전달을

자원한 것이다.

헨슬리 형제는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었다. 데이비드보다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았고 최근에 아론 신권에 성임된 형제였다. 그가 선교사와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인기가 많았으며 지금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는 집사들 옆에 우뚝 섰다. 당당하게 걸으면서 그는 정중한 태도로 거룩한 상징물을 전달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회원들이 현관에서 헨슬리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옆으로 가까이 지나가던 데이비드에게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누군가

가 말했다. “어린 집사들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혀요.” 데이비드는 그의 대답에 놀랐다. “저는 그 일을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제일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그는 말을 이어갔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손수 성찬을 전달하셨잖아요. 현대의 사도와 예언자들도 오늘 우리가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성찬을 전달한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성찬 전달을 특권으로 여기신다면 저도 그래요.”

조용히 그 옆을 지나가면서 데이비드는 방금 들은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를 찾을 수 있도록. □

웨인 비 린은 유타 센터빌 남 스테이크 센터빌 제9와드의 회원이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안다라이 스테이크 보타포고 와드의 청년 회원들

리우

에서 내민 손길

“그 분들께 손을 내미시다! 그들과 친구가 됩시다! 또한 친절합시다! 그들을 격려합시다! 그들의 신앙과 주님의 사업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 줍시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리아호나, 1999년 8월호, 15쪽)

영 다섯 살 된 레나타 아라우요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쓸쓸히 울리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걸어갔다. 레나타는 복도 끝에 있는 청녀반에 들어가면 자신이 유일한 반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와드가 조직되어 나오면서 그녀는 청녀반에 남게 된 유일한 활동 회원이었다. “무척 외롭다고 생각했어요.”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러나 레나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한때 조용하고 텅 비다시피 했던 브라질 리



우테자네이루 안다라이 스테이크 보타포고 와드의 교실은 이제 10명의 활동적인 청년의 목소리로 활기를 되찾았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것이다. 이들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특히 새로운 개종자와 저활동 회원과 비회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본 기사 전체에 해당)를 교회의 회원들이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도와준다

“한때 열렬한 신앙을 가졌으나 지금은 그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싶어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미는 정다운 손길입니다.”(리아호나, 1997년 1월호, 86쪽,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그 모든 일은 18세 된 쌍둥이 자매 카밀라와 사브리나 레이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 저활동 회원이었다. 새로 조직된 보타포고 와드의 청년 회장인 베라 피멘텔 자매는 모든 저활동 청년 회원에게 전화를 걸고 차로 그들을 교회와 활동 모임에 데려다 주었다. 그것이 쌍둥이 자매가 다시 교회로 나오는 데 필요했던 모든 일이었다.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피멘텔 자매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어요.” 하고 사브리나는 말한다.

질문에 대답해 준다

“그는 주변에 선교사들이 없을 때 질문에 대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크고도 종종 힘들 수 있는 변화를 겪고 있는 개종자의 친구가 됩니다.”(“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19쪽)

사브리나와 카밀라는 교회로 돌아온 후 곧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14세 된 아나 캐롤라이나 바티스타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쌍둥이 자매가 그들을 도와 주었다. 공과를 하는 동안 쌍둥이 자매가 곁에 앉아서 경전 구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아나 캐롤라이나가 처음 교회에 참석하면서 가졌던 걱정 거리는 모두 사라졌다. “마음이 편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피멘텔 자매는 모든 반원들에게 손을 내밀고 교실 한 가운데 놓게 하고는



▲ 카롤리나와 사브리나 레이스



▲ 다니엘라 리만노



▲ 아나 캐롤리나 바티스타

다른 사람의
신을 골라 신은 뒤
그 주인을 알아 맞추는
게임을 진행했다.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나 저를 도와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라고 그녀는 당시를 회상한다.

아나 캐롤리나는 쌍둥이 자매가 보여준 우정으로 인해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브리나와 카밀라는 그들대로 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낀다.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인사를 나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위험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개종자를 맞이하는 따뜻하고 강한 손들이 없는 한,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 없는 한, ... 그는 길 밖으로 떨어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2쪽)

아나 캐롤리나가 새로운 구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길을 내밀면서 연쇄 반응은 계속되었다. 16세의 타티안 피멘타는 피멘텔 자매로부터 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고 나서 가족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라고 타티안은 말한다.

그러나 타티안의 상황은 곧 바뀌기 시작했다. “친구가 생기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공과 시간에 피멘텔 자매가 모든 반원들에게 신을 벗어 교실 한 가운데 놓게 하고는, 다른 사람의 신을 골라 신은 뒤 그 주인을 알아 맞추는 게임을 진행했다. 타티안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나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나는 저에게 많은 용기를 준 첫번째 친구가 되었죠. 아나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친구가 된다

“모든 새로운 개종자는 ... 친구가 필요합니다. ... 모든 개종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모로나이사서 6:4)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2~123쪽)

카롤리나 카에타노는 여러 해 동안 저활동 회원이었던 부모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청년 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데다 이제는 교회와 회원 모두가 낯설었다. “교회에 다시 돌아오면 이제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수줍어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교회



보타포고 와드의
활동적인 청년 수는
1년 만에 한 명에서
열 명으로 늘어났다.

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곧 선교사와 피멘텔 자매가 카롤리나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피멘텔 자매님은 공과를 준비하고 나면 그 때마다 저의 집에 와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물문경을 읽도록 도와 주셨어요.”라고 카롤리나는 말한다.

카롤리나도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제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제 주위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애, 활동 모임에 나와. 이번 일요일에 꼭 나와야 돼.’라고 하면서 항상 저에게 모임을 상기시켜 주었죠.”

부름을 준다

“모든 개종자는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물론 새로운 개종자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올 성장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2쪽)

카롤리나처럼, 16세 된 카타리나 에카니스도 와드 회원으로부터 교회를 소개 받은 뒤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다. 또한 선교사 토론과 친구의 모범을 통해 그녀는 빠른 속도로 간증을 얻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월계반 회 장단에 부름을 받았다. “저를 의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모든 일을 잘해내고 싶어요.” 카타리나는 부름 덕분에 복음에 대한 간증이 강해졌다고 말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잠시동안 이 회복된 복음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알았다가 어떤 이유로 떠나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치기를 간청드립니다.

“저활동 회원이 주님의 교회와 왕국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돌아오도록 이끄는 데 주님의 도구가 됨으로써 오는 감미롭고 놀라운 느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8년 9월호, 37쪽)

16세 된 모에마 두벌리는 처음부터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했다. “청년 회원들은 저를 환영해 주고 제가 모든 것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마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침례를 받고 나서 몇 달 후 어머니가 교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자 모에마는 교회에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부분적으로 그녀가 받은 부름으로 인해, 하지만 주로 그들의 우정으로 인해 카타리나는 모에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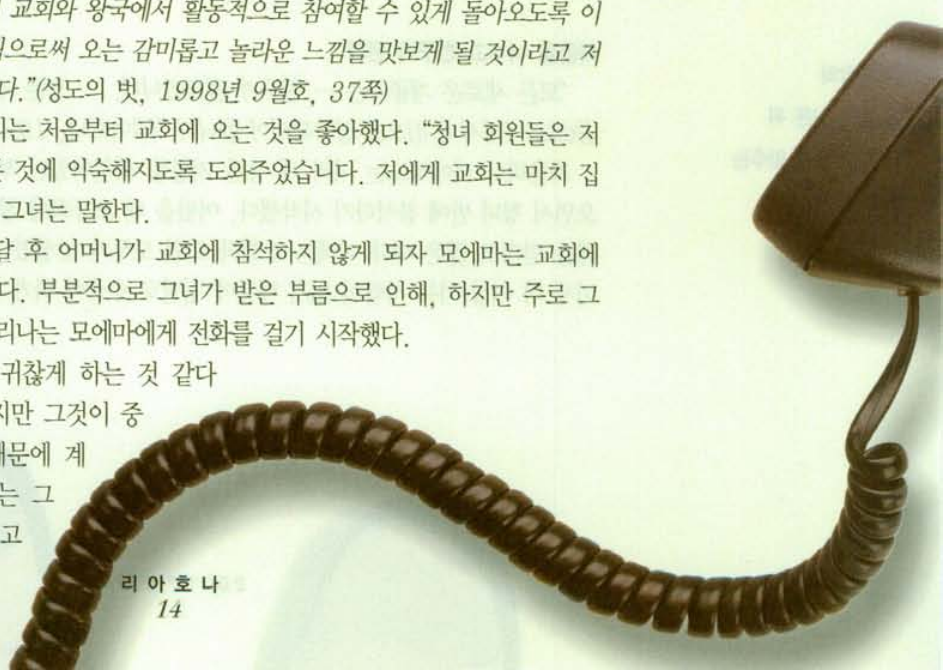
“때로 저는 모에마를 귀찮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노력했어요. 또한 저는 그 일에 대해 기도를 드리고



“친구들은 항상 제 주위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애, 활동 모임에 나와. 이번 일요일에 꼭 나와야 돼.’라고 하면서 항상 저에게 모임을 상기시켜 주었죠.”

카롤리나 에카니스도 와드

청년들은 회원과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
그들은 노숙자 수용
시설에서 봉사하고 있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라고 카타리나는 말한다.

카타리나와 다른 청년 회원들이 여러 달 동안 우정 증진을 한 뒤에 모에마는 결국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그 동안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과 하나님과 회원들과의 관계가 너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모에마와 카타리나는 특별한 유대를 누리고 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친구가 필요했는데 카타리나가 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요.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게 되면 자신이 다시 받아 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면 자신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되죠.”

카타리나는 그녀대로 이렇게 말한다. “모에마가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성공한 거예요. 저는 기도를 드렸고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도움을 준다

“모든 개종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모든 개종자는 위대하고도 중대한 책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2쪽)

세미나리 친구들은 최근에 개종한 다니엘레 라말노(14살)와 파멜라 실비아(16살)가 와드로 이사 온 후 그들을 도와주었다.

“우리가 비회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이 우리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형제들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도록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라고 다니엘레는 말한다. “그들은 저에게 매우 좋은 친구들이에요. 항상 세미나리와 활동 모임에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라고 파멜라는 말한다.

협력하여 봉사한다

“교회 회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의 축복에 감사함”,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5쪽)

보타포고 와드의 청년들은 서로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회원은 물론 저활동 회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도움이 손길을 뻗치고 있다. 공원에서 혹은 집 없는 십대를 위한 시설에서 봉사를 하든, 저활동 청년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든,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일어서서 청년 주제를 낭송하든 간에 이 청년들이 예언자의 말씀에 따라 모범을 보이려고 애쓸 때 그들은 남다른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

“청년 청년 여러분, ... 저는 여러분이 모든 개종자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개종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손길을 뻗쳐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모임, 멕시코 과달라하라, 1998년 3월 10일) □

“그러나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형제들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도록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라고 다니엘레는 말한다.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와 통찰력



성전의 중요성

“이 교회가 지은 모든 성전은 사실상,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곧 우리가 거치는 이 필멸의 인생이라는 기간은 계속되는 발전의 일부이며 이곳에 생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곳에도 생이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기념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는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 일어났으며 성전은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생과 다음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성전은 불멸의 것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가족의 영원함을 믿지 않는다면 결혼을 위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영

원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은 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의 예배 형태의 절정이 되며, 우리에게 대단히 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¹

주님께 충실하십시오.

“주님께 충실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은사와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굳건히 서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여러분께 이 약속을 드립니다.”²

약한 연결 고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



러분에 앞서 이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세대의 사슬에서 약한 연결 고리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며, 영원토록 중요합니다.”³

세상의 재난

“저는 [세상의] 수 많은 재난의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압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참사들의 희생자들을 돌볼 책임을 부과하셨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면, 우리는 그분이 추종자로서 매일마다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⁴

계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

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 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7) 그 교훈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과정입니다. 저는 조금도 주저 없이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는 수없이 많은 수백 수만 가지의 교회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것들에 대해 서로 상의합니다. 그런 후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 결정이 영감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⁵

하나님의 신권

“이 교회에서는 모든 합당한 남자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당한 남자는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교회의 관리직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

마나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훌륭한 것입니까!”⁶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며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는 이 사업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저의 책임과 의무만큼 큼니다.”⁷ □

주

1. The Associated Press의 번 앤더슨과의 인터뷰, 1999년 4월 20일.
2. 칠레 산타아고 지역 대회, 1999년 4월 26일.
3. 하와이 오아후섬 지역 대회, 2000년 1월 23일.
4. 이스트 밀 크리크 제12와드 성찬식, 1999년 12월 26일.
5. 데저렛 뉴스와의 인터뷰, 2000년 2월 25일.
6. 싱가포르 모임, 2000년 1월 30일.
7.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대회, 1999년 2월 28일.

그리스도의 영

어둠 속의 빛

“너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라.”

(모로나이사서 7:19)

다니엘 케이 저

말 일의 경전은 그리스도의 영이 단지 진리의 근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실 때 쓰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교리를 배움으로써 그것이 모든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예언자 몰몬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

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랴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랴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지니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모로나이사서 7:16~17; 이곳과 다른 인용 자료에서 강조 부분이 첨가되었음)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설명

말일의 경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반면, 그 목적과 영향력에 대한 설명은 많이 나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와 있다. 교리와 성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운다”는 것을 배운다.(교리와 성약 88:12) 이는 하늘과 달과 별의 빛이며, 만물을 만드신 힘이다.(교리와 성약 88:7~10 참조) 이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다.(교리와 성약 88:13)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므로]” 그리스도의 빛이라고도 불리운다.(교리와 성약 84:46)

그리스도의 영과 성신

종종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성신, 성신의 은사, 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혼동된다. 그러한 혼동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용어가 경전과 대화 상에서 종종 서로 대체되어 사용되며, 그 구절이 뜻하는 바를 명확히 규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성신이나 성신의 은사 또는 영으

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러한 실체들이 사용하는 기본 수단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종종 성신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면서 성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신은 신회의 구성원이지만,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근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교화시키고 인간의 자녀와 함께 일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일하면서 마침내 인간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져오고, 인간이 더 큰 빛과 성신의 간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¹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그리스도의 영은 신회가 인간과 자연을 운영하는 “신성한 본질”이라고 가르쳤다.²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침례 받기 전과 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인 이 영을



어느 정도 부여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침례 받기 전의 간증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폭풍이 이는 캄캄한 밤, 번쩍 길을 비추어 밝히는 번개 불빛처럼 온다”고 침언했다.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인생의 길과 그 주변을 계속 비추는 한낮의 빛나는 햇빛”에 비유했다.³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 목적에 있어서 예비 단계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시적인 성신의 증거를 받고 그 이후 침례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다 지속적인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러한 진행 과정의 한 예는 몰몬경의 라모나이 왕의 개종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문장은 라모나이 왕이 비록 왕의 권위를 지녔고 “그가 행하는 바가 모두 옳다”고 가르침 받았을 지라도 그를 잘 섬기지 못했다고 해서 종들을 죽인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미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라모나이 왕과 그의 부친인 위대한 영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행하는 바가 모두 옳다고 생각하여 왔으나, 라모나이 왕이 비로서 저의 종들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가를 염려하여 심히 두려워 하였으니” (앨마서 18:5)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모두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로마서 2:14~15 참조) 라모나이 왕의 마음 속에 있는 진리가 전통과 죄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지라도, 영이 그에게 역사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그의 판단력을 소생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라모나이 왕의 경험은 “그가 죽어 넘어가듯 땅에 엎드러질 때까지” 계속되고 심화된다. (앨마서 18:42)

라모나이 왕이 이 일을 극복하는 시간 동안에 그가 겪은 경험에 주목하자. “... 암몬이 ... 왕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놓여 있음을 알았음이니, 불신앙의 검은 장막이 왕에게서 거두어지고, 왕의 마음을 비추준 하나님의 선의 빛이요 영광의 빛인 그 빛이 왕의 영혼에 그토록 놀라운 기쁨을 불러 넣어 주어, 어둠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왕의 영혼에 임하였음을 알았느니라. 참으로 암몬은 이러한 사유로 왕의 육체가 압도되어 하나님께로 이끌려 갔음을 알았느니라.” (앨마서

19:6)

암몬은 왕이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라모나이 왕과 그의 종들은 곧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경전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가 주어지는 신성한 절차가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니파이서서 31:14 참조)

성신의 은사를 부여 받음으로써 추가로 오는 빛은 암몬의 경험에서 증명된다. 그는 왕의 가축을 지키면서 위대한 권능을 보였으며 (앨마서 17:36~37; 18:2), 후에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왕의 마음을 알아챘다” (앨마서 18:16)

암몬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부가적인 축복을 설명했다.

“나는 이 백성들에게 진리와 정의의 뜻을 가르치도록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그 영의 일부분이 내게 임하시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과 신앙대로 내게 힘도 주시나이다.” (앨마서 18:34~35)

발견과 이해력의 빛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하늘과 땅의 신비를 발견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이해력을 일깨우는 힘이다. (교리와 성약 88:11 참조) 니파이는 우리에게 콜럼버스로 알려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 또 다른 이방인들 [예를 들면, 순례자들, 청교도들 등]에게 임하함에 저들도 속박에서 풀려 나와 바다를 건너[갔다]고” 말했다. 또한 니파이가 약속의 땅을 찾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으로 “광야에서 [그의] 빛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니파이일서 17: 13)

앨마는 변화된 마음과 “영원하신 말씀의 빛을 받으니” (앨마서 5:7) 영혼에 대해 기록했다. 그는 또한 다음 구절에서 빛의 “분별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이 또한 참된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된 일이라. 이는 이것이 빛이요, 빛된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 빛은 만사

를 분별하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선한 것임을 아노라.”(엘마서 32:35)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 과학자, 예술가,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에 의해 축복을 받았다. 1978년에 대관장단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과 같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하메드, 공자, 종교 개혁가들과 같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부를 받아 ... 전 민족을 교화 시켰다”고 발표했다.⁴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1876~1970)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러한 발견을 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그와 같은 발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에디슨, 프랭클린, 모르스, 휘트니 이외에 모든 발명가와 발견자에게 영감을 주셨으며,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영감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었고 자기들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행한 것같이 제조하고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무력하였을 것입니다.”⁵

양심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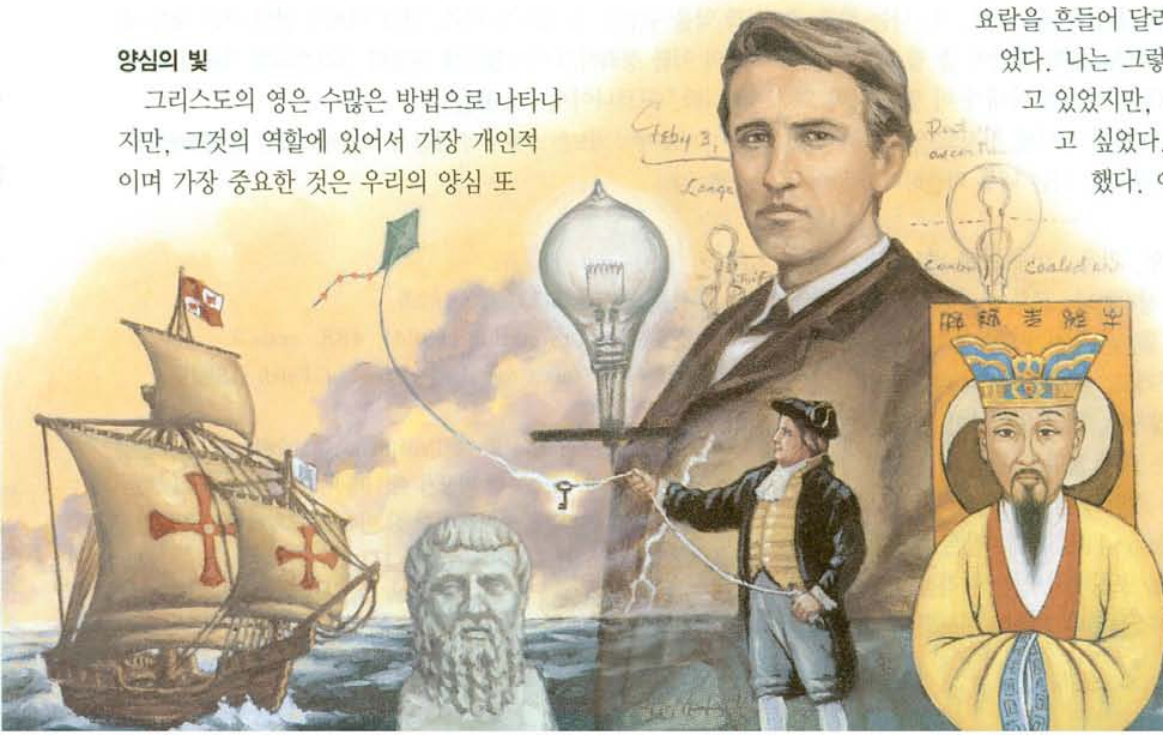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영은 수많은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개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 또

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써 표현된다.(모로나이서 7:16)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오직 주의 백성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만사를 행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 알게 된다.(힐라맨서 12:2)

비록 그것이 왜곡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양심, 즉 그리스도의 빛 또는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진실하게 생활한다면,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양심의 부드러운 권유를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진실하게 생활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양심이 죄책감의 근원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화평과 더 큰 이해력으로 인도될 수 있는 반면,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혼란과 비통에 빠지게 되며 종종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크고 불길한 문제들은 전형적으로 작고 간단한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대부분이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인, 양심의 소리에 대한 다음 예에 주목해 보자.

나의 아내가 우리 아기 레이첼이 잠들 수 있도록 요람을 흔들어 달라고 내게 부탁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식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싶었다. 나는 재빠르게 타협을 했다. 아기를 내 방으로 데려와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 과학자, 예술가,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을 축복 받았다.



서 이동식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아기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승승의 결정이 아닌가! 칼라 스크린으로는 볼 수 없게 되겠지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까짓 희생쯤이야!

문제는 그 경기를 본지 2분쯤 후에 일어났다. 레이첼이 칭얼대기 시작한 것이다. 텔레비전을 끄고 그 애를 안고 걸으며 노래를 불러준다면 곧 진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원망하면서, 나는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레이첼을 흔들며 주느라 애쓰면서 30분을 보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빛과 지식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화는 생각과 감정과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증상의 형태로 온다. 잠언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쓰여있다.(잠언 12:15) 나의 딸 레이첼과의 경험에서, 내가 스스로 한 정당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나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해. (2) 아내가 나보다 아기를 훨씬 잘 다루니까 아내가 이 일을 해야 돼. (3) 아내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해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일을 시키다니 공정하지 못해. (4)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앉아서 좀 쉬어야 해.

우리는 종종 “죄”를 살인, 간음, 기타 크게 비윤리적인 것과 같은 심각한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가장 심각한 죄들에 속하지만, 경전은 우리가 언제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야고보서 4:17) 인정하기에는 약간 편치 않지만, 내가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걸어 다니지 않았을 때, 나는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동한 것이며, 그것은 곧 죄인 것이다.⁶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전쟁, 질병, 가난 등을 포함해서 인간이 겪는 고난에는 많은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부터 고통이 비롯되는 것이 사실

이지만, 저는 인간이 겪는 고난의 가장 지속적인 원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은 가장 깊은 고통을 야기하는데, 그것은 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보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더욱 정확한 처방전을 갖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양심을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⁷

풍성한 축복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 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 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우리 각자가 다음과 같은 몰몬의 권유에 귀 기울여 그 빛을 이해하고 그 빛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러므로 ...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너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선한 모든 것을 좇으며 이를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모로나이서 7:19) □

다니엘 케이 저드는 오렘 유타 캐년 뷰 스테이크 캐년 뷰 제5와드의 회원이다.

주

1. 복음 교리, 제 5판 (1939), 62쪽.
2. 신앙개조, 12th edition (1924), 488, note 3.
3.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4), 262.
4. Statement of the First Presidency, 1978년 2월 15일.
5.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1954~1956), 1권 142쪽.
6. 내가 양심과 죄라는 용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나의 동료 시 테리 와너에게 감사한다.
7.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ited by Edward L. Kimball (1982), 155.

마이클이 남긴 쪽지

커밀 콜 타벳

사진 삽화: 매트 레이어

나는 우리 가족 중 아무도 다시는 그런 식으로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왜 엄마가 그날 오후에 나에게 그 쪽지를 보여 주셨는지는 잘 모른다. 6남매의 맏이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학교를 졸업해서 집에서 나가게 되는 날만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동생들의 모범이 되고,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마다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지쳐 있었다.

어떻게 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마이클이 남겨 놓은 쪽지를 내게 보여 주는 것이 그날 엄마가 나를 위해 하실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그날 나는 다른 세 남동생들과 두 여동생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엄마가 내게 “너에게 보여 줄 것이 있어.”라고 말씀 하셨을 때 사실 나는 매우 조바심이 났다.

엄마와 함께 동생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엄마는 동생의 베개 밑에서 쪽지를 하나 주워 들으셨다. 11살짜리가 쓴 삐뚤빼뚤 한 글씨로 “오늘 집에 돌아 오지 않을거야. 나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야.”라고 쓰여 있었다.

눈물이 차올라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학교로 마이클을 데리러 가자.”

나는 목이 메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엄마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우리 가족 중 아무도 다시는 이렇게 느껴서는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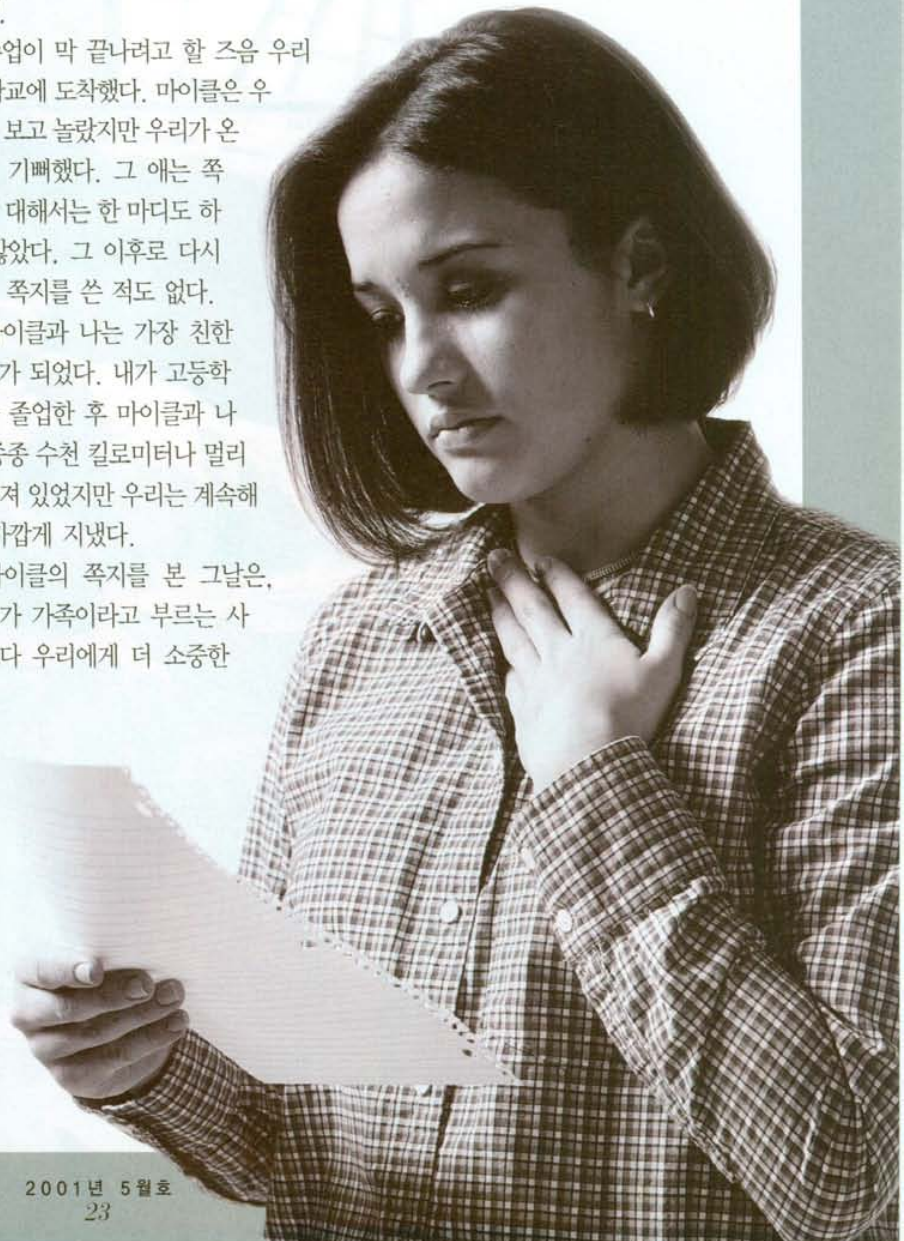
수업이 막 끝나려고 할 즈음 우리는 학교에 도착했다. 마이클은 우리를 보고 놀랐지만 우리가 온 것에 기뻐했다. 그 애는 쪽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다시 그런 쪽지를 쓴 적도 없다.

마이클과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마이클과 나는 종종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가깝게 지냈다.

마이클의 쪽지를 본 그날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날이었다. □

커밀 콜 타벳은 유타 스미스필드 북 스테이크 스미스필드 제12와드의 회원이다.



벼랑 끝에

살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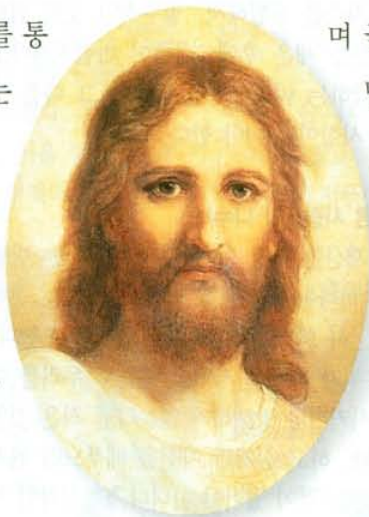


의의 경계선은 죄의
가장자리이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추락의 위험을
조심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1:31 참조)

“모든 은사에 대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사로 축복을 받는다. 축복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 본질상 주로 영적인 축복들인 이러한 은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미처 감사 드리지 못할 때 올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러한 경우

이다. 장애를 가진 남자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 한 어머니는 뚜렷한 이유 없이 유치원에 있는 어린 딸을 찾아 가라는 속삭임을 듣는다. 한 젊은 어머니는 혼자서 자녀들을 키울 힘을 구한다.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한 젊



은이를 인도하여 결국 그는 교회에 가게 되는 우연한 기회를 갖게 된다. 각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주님의 살아계신 예언자는 다음과 같은 간증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분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 모든 은사와 은총과 축복에 대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굳건히 서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종으로서 여러분께 이 약속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2001년 5월호 리아호나, 16쪽)

날아오르는 의지

조지 플로어스

페루 리마의 칼로스 유페즈 용은 다리와 오른 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영이다. 그가 말하거나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의 말은 참으로 아름답게 들린다.

유페즈 형제의 마비 증상은 출생 당시 받은 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태어난 후 처

음 5년 대부분의 기간은 정맥 주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 받으며 식물 인간의 상태로 있었다. 그를 치료하던 의사들 중 몇 명은 그를 계속 살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놀랍게도, 칼로스는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치

료가 시작되었으며, 그의 정신적 능력은 몇 년 뒤에 또래 학생들을 능가할 정도로 발달했다. 그의 신체적 발달은 12세 이후에 다소 늦어졌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이혼했으며 치료도 중단되었다.

칼로스는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했으나, 절망 속으로 빠져 들지 않았다. 20세가 되었을 때, 한 이웃이 그에게 선교사 토론을 권유했다. 칼로스는 그 토론을 모두 듣고 기도하고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한 후에, 그가 배운 것이 참되다는 영적 증거를 받았다. 그는 침례 받기

로 결심했다.

칼로스는 침례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마음 속으로, 저는 마치 저의 쓸모 없는 팔과 다리가 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부름에 봉사하겠으며,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지치 아니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89:20)

신체적으로는 여전히 마비 상태에 있었지만 칼로스의 영은 활발히 활동하게 되

었으며,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 그는 정시에 모임에 와서 교회 교육 기구가 지원하는 성인 종교 교육반에 참석했다. 그는 리마 페루 라스 플로어스 스테이크의 카자 드 아구아 와드의 청남 회장단 제 2보좌로 부름 받았다. 매일, 우리는 그가 휠체어를 밀고 이집 저집을 다니며 청소

우리는 칼로스가 이집 저집을 다니며 청소년들을 상호 향상회 모임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년들을 상호 향상회 모임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이후 여러 해가 흘렀다. 그는 이제 로스 자딘스 와드의 회원이다. 그는 여전히 주님과 그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



을 가지고 있으며 페루의 리마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가정 복음을 하며, 구도자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돕는다. 그의 인내심, 간증, 주님에 대한 신뢰 덕분에 지금은 그의 조카 일곱 명과 친구 몇 명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 다른 회원들,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교회로 돌아와 재활동 하게 되었다. 그는 모임에 절대로 빠지지 않으며, 노년의 밤에 자주 참석하고, 워드 활동에도 참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장애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스테이크 내의 청소년들은 그의 영은 누구보다도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고 말하며 그를 존경한다.

조지 플로어스는 페루 리마 라스 팔메라스 스테이크, 라테라스 워드의 회원이다.

“가서 웬디를 확인해라”

달린 조이 니콜스

우 리 큰 딸 웬디가 다섯 살이었을 때 웬디는 매일 아침 유치원에 갔다. 어느 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는 장을 보러 가기 위해 그 아래 두 아이들을 준비시켰다. 시간에 맞추어 웬디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려면 장보기를 제 시간에 끝마쳐야 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장보기 목록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어린 두 아이들을 이끌면서 가게로 출발했다.

20분쯤 후에 한 생각이 머리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달린, 가서 웬디를 확인해 보아라. 나는 곧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이야! 웬디는 유치원에 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장보기를 계속했다. 잠시 후에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달린, 가서 웬디를 확인해 보아라. 그 생각이 너무도 선명해서 나는 식료품 가게 통로 중간에서 멈추어 섰다.

장보기 목록과 조금 후면 제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을 어린 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웬디는 분명히 잘 있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통로를 걸었지만, 그 느낌은 다시 더욱 강하게 들었다. 달린, 가서 웬디를 확인해 보아라!

나는 점원에게 식료품을 가지러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가서 웬디를 확인해 보아라.
그 생각이 너무도 선명해서 나는
식료품 가게 통로 중간에서
멈추어 섰다.*



가게에서 나왔을 때 심한 천둥과 폭우가 왔었다는 것을 알았다. 웬디는 천둥과 폭우를 무서워했다. 그러나 나는 그 애가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유치원으로 가 보았다. 평상시와 다를 것이 없어 보였고, 폭풍도 이미 지나가고 있었다. 아마도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왕 이 곳까지 왔으니 적어도 교실 앞까지 가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했다.

모퉁이를 돌아서 웬디의 교실로 갔을 때, 교실 문은 열려 있었고 웬디는 문가에 서 있었다. 참 이상도 하지! 왜 저 애가 자기 책상에 앉아 있지 않은 거지? 나를 보고 아이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몰라 그냥 그 아이를 안아 주었다.

“엄마, 엄마가 올 줄 알았어요!” 라고 그 아이가 말했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와서 말했다. “엄마가 오실 줄 어떻게 알았니?” 그리고는 선생님은 천둥과 번개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졌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앉히려고 애쓰던 선생님은 웬디가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웬디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에게 자기는 괜찮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엄마를 보내 달라고 간구했다고 말했다. 웬디는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려도 괜찮겠느냐고 선생님께 여쭙었다.

나는 다섯 살 짜리 아이의 신앙의 기도가 문자 그대로 나를 몇 킬로 미터 떨어

진 식료품 가게로부터 그 아이 곁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이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 날 웬디와 나 둘 다 신앙과 신뢰에 대한 성스러운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달린 조이 니콜스는 미네소타 주 빈스빌 스테이크 빈스빌 와드의 회원이다.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강해졌다

일라이자 엠 토레스

여섯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 12년 만에, 나는 남편과 헤어졌다. 남편의 어머니는 계속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자녀들은 너무 어려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나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내가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남편과 헤어진 지 몇 주 안되어, 나는 약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다. 비록 나는 고향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위로 받기를 갈망하며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의혹에 시달리며, 나는 마치 안개 속에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분명하게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내 어깨에 달린 그들의 복지에 대한 책

임을 느꼈다.

겸손하고 절실히,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건강, 맑은 정신, 자기 연민이나 이기심 없는 정서적인 힘, 이 세 가지 은총을 간구했다.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필리핀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수입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은 충족되었고, 나는 자녀들에게 엄마와 아빠의 역할 둘 다를 해주는데 필요한 맑은 정신과 정서적인 힘을 찾았다.

나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애정과 가능한 한 많은 관심을 주었다. 일요일과 휴일에는 아이들에게 전념했다. 나는 그들에게 화를 품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며, 두려움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지 말며, 다만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 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아무도 미워하지 말며, 특히 그들 곁에 없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도록 배웠다.

그들은 또한 서로 나누는 것과 견고한 가족의 유대를 쌓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생각을 나누었고 서로의 다른 관점을 존중했다. 서로의 성공을 기뻐했으며 실패했을 때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며, 웃고, 나누며, 무엇보다도 함께 노는 단합된 가족이었다.

남편과 헤어진 지 7년 만에, 내 자녀들 중 네 명과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었다. 교회의 가르침은 내 아이들을 더욱 정체시켰으며,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더 많이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을 배웠다.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 안에 내재해 있었으나 미

처 자각하지 못했던 지도력과 다른 능력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회원에게 오는 화평과 소속감을 기뻐했다. 내 자녀들은 종종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 교육적, 정서적, 영적인 권고를 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름에 헌신했으며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나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기술들을 개발시키며 발전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나의 아들과 세 딸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나의 시련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길로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여러 번 지치기도 했지만,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휴식을 주셨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셨다.

나는 풍성하게 축복을 받았다. 나는 나의 아름다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큰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분들이 끼치신 영향력에 영원히 감사 드린다.

일라이자 엠 토레스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스테이크 밀피타스 와드의 회원이다.

잃어버린 소책자

웬세슬라오 살구에로

나는 과테말라의 작은 마을인 엘 프로그레소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 내

가 열 살쯤 되었을 때, 생소한 소책자 하나가 내 손에 들어 왔다. 그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부모님이 다니던 종교에서 받고 있었던 교육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소책자의 소년에 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몰랐다. 곧 나는 그 소책자를 잃어 버렸으나, 그것에 관해 결코 잊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것을 또 하나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십대와 성인 시절에, 나는 여러 교파에 대해 조사했다. 나는 심지어 그들의 교리 수업을 듣고 수료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교파들은 나를 고뇌하게 하는 면들이 있었고, 성직자들이 때때로 서로 다른 교파를 비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때쯤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내가 연구했던 종교들에서 본 것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 종교들에 하나님의 권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그의 참된 교회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 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나는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겠으며, 항상 그분을 섬기겠다고 약속 드렸다.

나는 내가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꿈도 꾸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

나 내 배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또한 요셉 스미스에 대한 소책자들 다시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 드렸다.

1968년 나는 결혼했고 아들도 생겼다.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테말라 시로 이사했다. 1975년 11월 20일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두 명의 젊은 미국 여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전해 줄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후에 만날 약속을 했다.

나는 첫번째 토론을 명확하게 기억한다. 그 젊은 여성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다른 한 사람이 요셉 스미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소년이었을 때 읽었던 그 소책자가 들려 있었다. 진리를 찾으려는 나의 여행은 우리 집 거실에서 종결되었다.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그 소책자를 낚아채고 싶었다. 그 자매들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길을 보고는 그것을 내게 주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내게 그 소중한 소책자를 주었을 때, 나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내 심장 가까이 보관하기 위해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이틀 후에 선교사들이 다시 왔다. 그들이 내 주머니에 들어 있는 그 소책자를 보고는, 그것을 읽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소년이었을 때 그것을 읽었으며 그것을 다시 얻게 해

꿈의 땅에서 온 사람들

달라고 기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일요일에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갔다. 우리는 매우 일찍 도착했으며 그 자매들은 우리를 보고 놀랐다. 사실 그들은 교회 건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만 말했을 뿐,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지는 않았다.

그 자매들은 우리를 계속 가르쳤다. 그들은 비록 스페인어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성신을 통해 가르쳤다. 그들이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 가르쳤을 때, 나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고 울기

그 젊은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스미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에는 내가 소년이었을 때 읽었던 그 소책자가 들려 있었다.

시작했다. 이윽고 나는 우리 모두가 울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참된 교회를 찾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내 아내, 로사 리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그 자매들이 우리에게 침례 받을 것을 권유했을 때 일어났다. “살구iero 자매님,” 그들이 물었다. “구세주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바로 그때 내내는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주님께 그분의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분께 봉사하겠다고 약속 드렸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충실하게 참석했으며 부지런히 봉사하려고 노력해 왔다. 나는 두 번의 감독 부름을 포함해서 많은 훌륭한 교회 부

름들을 받았다. 내 아내는 초등학교와 상호부조회와 가족 역사 프로그램에서 봉사했다. 큰 아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지금은 그의 동생이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두 딸 또한 교회에서 활동적이다.

교회에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나는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내가 느끼는 기쁨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분의 복음과 교회와 신권의 권능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웬세슬라오 살구iero는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보스게스 드 산 니콜스 스테이크 티에라 누에바 와드의 회원이다.



더 나은 가정의 밤 만들기



가정의 밤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기”(교리와 성약 88:77) 위한 우리 노력의 중심이 된다. 한 두 시간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서 배우고 봉사하며, 서로를 강화시킬 때 이 시간은 가족에게 세상의 소음과 혼돈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된다. 우리의 도전은 가정의 밤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은 세 가족이 그들의 가정의 밤을 개선시킨 방법들이다.

가정의 밤을 함께 계획하기

요르크 펜실베이니아 스테이크 챔버버그 제1와드의 리사 에이치 퍼넬리우스는 공과를 맡은 사람이 가정의 밤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당황스러운 경우를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예방했는지 보고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 시간을 공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할애한다. 그들은 성신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공과 계획을 나누어 준다.

1. **주제:** 가족이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는지 결정한다.
2. **주의 끌기:** 주제를 소개할 실물 공과, 퀴즈, 단어 탐구, 사진, 또는 퍼즐을 선택한다.

3. **이야기:** 공과의 주제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선택한다.
4. **그 주의 성구:** 공과 내용을 뒷받침 해주는 성구를 선택한다. 가족은 이 구절을 공과가 끝난 후 일주일 간 공부하게 될 것이다.
5. **간증:** 가르친 것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6. **활동:** 공과를 보강해 줄 게임이나 미술 활동을 선택한다. 교회 잡지, 경전, 찬송가, 기타 자료들은 가족이 공과를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둔다. 큰 자녀들은 자신의 힘으로 준비한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돕는다. 저녁 시간이 끝날 무렵, 각 가족 구성원은 공과 준비를 마치고 시각 보조 자료 준비도 완료한다.

엄마의 메시지

유타 주 허리케인 스테이크 허리케인 제4와드의 재롤린 발라드 스타우트는 10명의 자녀를 갖고 있다. 모든 가족이 돌아가며 공과를 맡으므로, 엄마와 아빠는 두 세 달에 한번 밖에 가르칠 기회가 없다. 재롤린과 그녀의 남편은 가정의 밤에서 그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엄마의 메시지로 하고 하는 새로운 순서를 창안해 냈다.

매주 공과가 끝난 뒤, 아빠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부탁하는데, 그것은 짧을 수도 있고 긴 토론이 될 수도 있다. 엄마는 대화 말씀 중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가족에게 필요한 사항을 다루기도 한다. 때로 엄마의 말씀은 그날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전한 공과에 관련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 공과는 자녀가 그것을 준비할 때 엄마가 도움을 준 것인 경우 더욱 그렇다.

“엄마의 메시지는 우리 집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타우트 자매가 말한다. “아이들도 그것을 좋아하고 부모로서 우리는 가정의 밤에서 추가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도록 자녀를 돕기

“다섯 아이의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선교 사업의 기회를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라토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쿠포티노 와드의 로라 에프 닐슨은 말한다. “매주 가정의 밤에서 우리는 각 가족 구성원이 지난 7일 동안 가졌던 선교 사업의 기회들과 각자 그 기회들을 어떻게 했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몇 분 동안 갖습니다.” 닐슨 가족은 함께 그러한 상황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토론한다.

그 결과, 가족 구성원들은 선교 사업의 기회를 만드는 것에 관해 배우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교회 이름을 말할 때 약칭 보다는 온전한 명칭을 말하도록 배웠다. 자녀 중에 한 명은 학교 숙제로 교회 역사에 관한 내용을 제출했다. 또 다른 자녀는 학교 선생님들이 여덟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었을 때, 자신이 침례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설명해드렸다.

가끔 가족들 중에는 선교 사업의 기회를 놓쳤거나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그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기회가 오면 어떻게 더 잘 이용할 수 있을지 배울 기회를 갖게 된다. “가족의 열의는 우리가 부끄러움이나 게으름을 극복하도록 해줍니다.” 닐슨 자매는 말한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스스로 그러한 기회들을 찾고 있으며 조언을 구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열심히 보고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도움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





인생의 여정

에서 배운 교훈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세상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셉 비 워스린

십이사도 정원회

세계 대학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 생활의 많은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우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미식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의 미식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항상 키워왔고 일, 이, 삼학년 때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러닝백으로 활약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혼돈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치 세력들은 서로를 헐뜯고 비방했습니다. 긴장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나라들은 서로를 대적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점점 커져 가는 굉음과 곧 폭발해 버릴 화산 속에 신음하고 있는 듯 했고, 결국 그 화산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끝나기 전에,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은 그 암울한 시대의 결과를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1936년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조셉,”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니?”

저는 그 분께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야 한다.” 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기다린다면, 결코 가지 못할 거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식 축구를

오스트리아의 쌀쌀하고 맑은 크리스마스에 동반자와 저는 우리의 목표들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저의 꿈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 사업 기간이 30개월이나 되었으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다시는 미식 축구를 하지 못하고 아마 대학 졸업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저의 아버지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감독님은 후에 교회 대관장단이 되신 메리온 지 롬니(1897~1988)형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전에 선교 사업에 관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으며, 저는 지금이 그 때라고 그 분께 말씀 드리러 갔습니다.

몇 달 후에 저는 맨해탄 증기선에 올라 위기의 세상 한 가운데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일-오스트리아 선교 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첫번째 임지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였습니다. 선교 부에는 충분한 선교사가 없었고, 제가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제 동반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 갔습니다. 저는 곧 낯선 이국 땅에서 젊은 선교사로서 잘츠부르크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제 삼 레이 대 부대가 잘츠부르크에서 30킬로미터도 안 되는 국경선에 집합하고 있었습니다. 고조되는 긴장감을 가는 곳곳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독일군의 탱크가 국경을 넘어 침입해 올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날들을 잘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처럼 그렇



게 좌절하고 길 잃은 느낌을 가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메시지를 듣기 위해 시간을 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 와드를 만들 만큼 충분한 회원이 있을 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6주 동안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6주 동안 저는 동반자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6주 동안 만약 내가 솔트레이크시에 계속 머물러서 학업을 계속했다라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낮과 밤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결국은 그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선임 동반자가 도착했고,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동반자와 저는 아름다운 바바리안 알프스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작은 마을인 오번도르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영감을 받아 1818년 조셉 모어가 훌륭한 찬송가 "고요한 밤"(찬송가, 134장)의 가사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는 그 마을로 걸어 갔으며 작고 초라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오르간 음악을 들으며 잠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짙고 맑은 겨울 밤 속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 아래, 방금 내린 부드러운 눈의 고요함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아마도 그 밤은 100년도 훨씬 이전에 조셉 모어가 모든 기독교에서 가장 사랑 받는 찬송가의 가사를 쓰도록 영감을 받은 그 밤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동반자와 저는 우리의 희망과 꿈들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들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

바닷물로부터 책 한 권을 보호하는 일이 하늘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생활과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성취하는 일에 관해 더욱 더 진지해졌습니다. 보름달 빛 아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둘 다 진지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께 봉사하기로 새로이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제가 받는 모든 부름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저녁은 또한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를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복음대로 생활하며 강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제 마음에 정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 동반자에게 그녀는 키가 165센티미터 정도이고 파란 눈을 가졌고 금발 머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스린 자매는 제가 그녀를 알지 못 했을 당시에 그녀를 묘사했던 모습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제게 중요합니다.

언제 흘렸는지도 모르게 2년 반이 지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유타 호텔에서 대학 댄스 팀을 이끌고 있는 젊은 여성인 엘리사 로저스라는 이름을 말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 친구의 부탁으로, 저는 그녀의 집에 그녀의 자매를 데리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문을 열었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키는 165센티미터 가량 되었으며 파란 눈에 금발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어떤 느낌을 가졌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제게 "저는 당신이 누구라고 알아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 자기가 문법적으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녀가 영어를 전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녀는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을 잊

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이 상황을 호전시켜 주진 않지만, 저는 그녀가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러한 결심을 했던 오번도르프에서의 크리스마스 이브로부터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식 축구에 대해 전에 가졌던 제 느낌은 옳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미식 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데 전념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제 인생은 모험과 영적인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조금 낙담하거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버려진 느낌이 조금 들지도 모르며 심지어는 두려운 느낌까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때때로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 질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2천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표 즉 행복해지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0년을 산 뒤에,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을 행복과 성공과 성취와 해의 왕국의 상속으로 이끄는 다섯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첫째,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잘츠부르크에서 얼마 동안 봉사한 뒤, 저는 스위스의 취리히로 이동 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 교회 회원이었던 줄

리어스 빌레터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문 계보 학자 였으며, 그의 직장에서 워스틴이라는 이름을 한 두 번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가족의 계보를 조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편지를 썼고, 아버지는 그것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고용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그는 제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36 센티미터였고 너비가 46 센티미터, 무게는 6.2 킬로그램이나 되었습니다. 그 책은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저의 조상들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정말로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선교사에서 해임되기 바로 직전에 저는 그 소중한 책을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가방에 넣어 집으로 부쳤습니다. 저는 그 짐이 안전하게 도착해서 귀중한 가족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저는 제 가방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제 가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권밖에 없는 그 책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솔트레이크에 도착한지 6개월 만에, 유니온 퍼시픽 철도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짐가방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가지러 달려간 저는 가방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가방의 잠금 장치가 고장 나 있었던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 올려서 안을 들여 다 보았을 때,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닷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제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없어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책을 찾으려고 조심스럽게 옷들을 걷어냈습니다. 제 손에 책이 닿았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책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생활에서
첫번째로 두십시오.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매일 더욱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손의 능력이 활용되어
평범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젖어있지 않았습니 다. 저 는 그 책을 보존하기 위해 신성한 힘이 개 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참 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 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 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 다 귀하니라”(마태복음 10:29~31)

같은 방식으로 말하자면, 바닷물로부터 책 한 권을 보호하는 일이 하늘의 관 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께서는 여러분의 생활과 필요사항에 대 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습 니까?

어느 모임에서, 현재 대관장단 제1보좌 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것을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 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 확실히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을 돌아 볼 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 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시련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승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의뢰 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여 러분의] 길을 지도하실것입니다.”(잠언 3:5~6)

의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두 번째, 의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 나 갈 때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차지하려 경쟁할 것입니다. 끝없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여러 상황이 부와 쾌락

과 권력을 약속하며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성공이란 말은 유혹적인 말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한 책들이 수천 권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돈, 자유, 오락, 사치를 약속합 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를 획득하기 위한 수 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제이 폴 게티는 부를 얻는 세 단계를 제 시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열심히 일하라. 석유 광구를 찾아 내라.”

아마도 더욱 실용적인 공식들이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다양 한 철학들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에 대한 모 든 생각, 감정,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들을 원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여러분 의 목표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 모든 힘을 집 중시켜야 합니다.

물론, 의로운 목표에 적용될 때, 이러한 방법들은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와 쾌락과 권력에 대한 추구는 처음에는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대가로서 여러분의 장자의 명분을 값으로 치르는 경우가 너 무 많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예 서처럼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는 “방성 대곡”하게 될 것 입니다.(창세기 27:34)

우리가 성공에 너무 집착하게 될 때, 흔히 빠지게 되는 또 하 나의 덫은 우리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믿고, 우리를 축복하 시 고 번영케 하시는 주님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먹 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 부하게 될 때에 ...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 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신명기 8:12~13, 17, 19)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으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벤 칼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을 결정하거나 제한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좇으리니, 혈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펴 구제

하게 되리라.”(야곱서 2:17~19)

모세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신명기 15:7)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번 돈을 다음 세상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생활에서 첫번째로 두십시오.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매일 더욱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늘의 부를 얻는데 여러분의 노력을 집중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실망과 슬픔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부를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구세주의 비유가 생 각됩니다. 그는 너무 많은 재물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보관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를 가지면 그 즉시 은퇴하여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창고 짓기를 끝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누가복음 12:20)

구세주께서 살아계실 때 물으신 한 침착한 질문이 수세기를 거쳐 우리에게도 울립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태복음 16:26)

돈은 반드시 악한 것입니까? 물론경의 예언자 야곱은 이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 습니다. “너희 형제 생각하기를 네 몸같이 하며, 만인에게 친 절하며, 너희 재물을 값 없이 나누어 저들로 너희 같이 부하게 하되,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십시오.

셋째, 일단 의로운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십시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장 로가 십이사도 정원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특권은 은사이며, 일하는 힘은 축복이며, 일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개인 및 가족 재정 예비 프로그램”, 프랭클린 디 리차즈, 1979년 10월 성도의 벗, 58쪽)

일은 영혼을 위한 치료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의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게으름은 주님의 속죄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영적 또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중요한 일들은 천재들에 의해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 균형을 이루고, 비범한 방법으로 일하기를 배우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Our Fading

Civility”, 브리감영 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 1996년 4월 25일, 15)



교회는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돕고 강화시켜주는 곳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큰 책임감을 갖고 처음에는 비록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룬 놀라운 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 칼슨 박사입니다. 칼슨 박사는 디트로이트의 도시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홀로 짴어졌으며 아들에게 이 책임감을 물려 주었습니다.

칼슨 박사는 그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할 줄 아느냐?”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올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조니나 메리, 또는 그밖에 누가 무엇을 했느냐는

상관이 없다. 너는 생각할 수 있으니, 문제를 해결할 너희들의 방법을 생각해 내거라.”

칼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으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성공을 결정하거나 제한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그것을 이해하게 되자, 인생에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과 그로 인해 생긴 피해 의식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eeing the Big Picture: An Interview with Ben Carlson, M.D.” *Saturday Evening Post*, 1999년 7/8월호 50~51쪽)

칼슨 박사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통제권을 가졌

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며 계속해서 훌륭히 해내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인 발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아동 센터의 소아 신경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1987년 칼슨 박사는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최초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우리 노동의 대가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모두 파신다.” (*Xenophon, Recollections of Socrates*, 2권 1장 20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 말을 이렇게 되풀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산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꿈을 현실화시키고 불투명한 꿈을 역동적으로 달성하게 해 주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생애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손의 능력이 활용되어 평범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고든 비 힝클리, 1993년 3월호 *성도의 벗*, 5쪽)

부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우리는 구세주를 따르고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 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완전한 것들을 말하고, 완전한 생각을 하며, 완전한 감정을 느끼는 곳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빨리 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서로를 돕고 강화시켜 주기 위해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애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괴롭히는 유혹들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덜 완전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만큼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만큼 잘

**조셉 밀레트는 주님께서 그를
뉴튼 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실 만큼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만
큼 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려
분 만큼 바느질이나 꿰미질을 못
한다 해서, 또는 여러분 만큼 잘 생
기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
가도록 돕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집단입니다. 하나님
의 왕국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스스
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의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얼마나 잘 도와 주고 있는가? 나는 교
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 주는가 아니면 그들을 무너뜨리
는가?”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들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면, 여
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왕국을 세우고 있
는 것입니다.

왕국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스스
로에게 교회의 부름에 활동적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
다. 여러분이 부름을 영화롭게 할 때, 진지한 노력과 생각 없이
단순히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과 생
각과 힘을 다하여 부름에 봉사하도록 스스로에게 목표를 줄 것
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감독님에게 가
서서 즐거이 모든 일하여 봉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충실히 봉사할 때, 주님께서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의 영을 느낄 것이며 그분의 인도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
커 장로님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은 교회 회원인 조셉
밀레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살았습니다. 사막을 경작하고 새 집
을 찾으러 다른 충실한 회원들과 함께 평원을 건너 왔습니다. 처
음 몇 년은 음식이 귀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힘들었으며, 저장
한 음식은 일찍 떨어지곤 했습니다.



조셉 밀레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
가 내게 와서 뉴튼 홀 형제의 가족이 빵이 없어 그날 아무 것도
못 먹었다고 말했다.

“나는 홀 형제에게 보내려고 우리의 밀가루를 나누어 자루에
넣었다. 바로 그때 홀 형제가 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홀 형제님, 밀가루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밀레트 형제님.’

“홀 형제님, 저 자루에 밀가루가 좀 있습니다. 형제님에게 가
지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형제님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밀
가루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홀 형제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집에 가 보았지만 밀
가루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숲으로 가서 기도하
자 주님께서 그에게 조셉 밀레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야기했다.

“홀 형제님, 이걸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
내셨다면 형제님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조셉 밀레트는 그의 일지에 아래와 같은 훌륭한 글을
적었습니다. “주님이 조셉 밀레트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신
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조셉 밀레트의 일기, 문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록
보관소; 교회의 평회원에게 드리는 찬사, 1980년 11월호 성도
의 벗, 89쪽)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하실 만큼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의 느낌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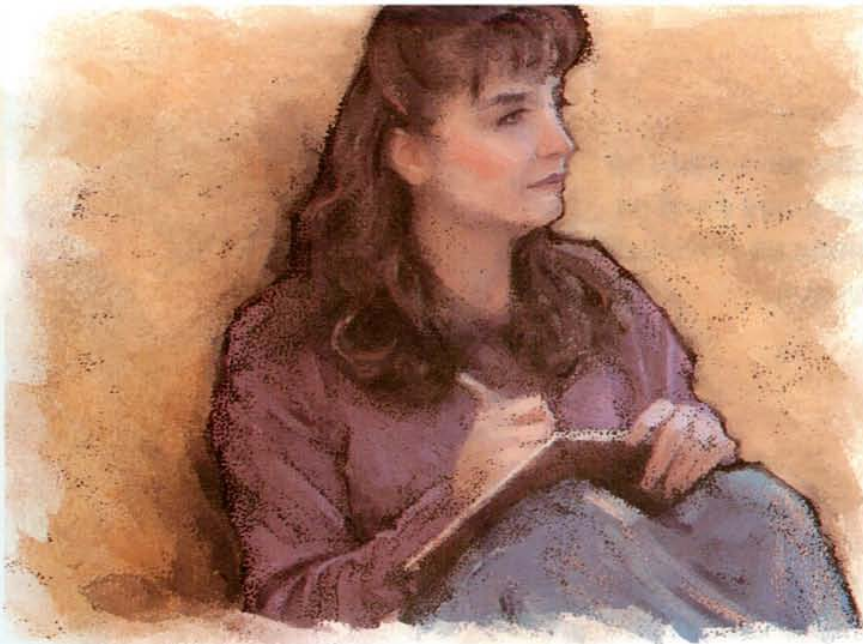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 여러분의 힘을 쏟으십시오.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버지께서는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행하며 다닐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만족과 기쁨이라는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인생의 여정을 즐기십시오

다섯 째, 인생의 여정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운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침착하고 경건하고 헌신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생의 기쁜 원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 지을 일도 많고 행복해 할 일도 많으며 웃을 일도 많습니다.

우리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항상 행복해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졸업만 할 수 있으면, 차를 살 수만 있으면, 결혼할 수만 있다면 …” 너무 많은 이유 때문에, 행복이 지평선 저 너머에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행복은 그 다음 고개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미래에만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항상 내일을 기다리고, 항상 내일에 의존하며, 항상 오늘을 변명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꼭 맞는 직장, 꼭 맞는 집, 꼭 맞는 봉급, 꼭 맞는 드레스 사이즈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하십시오. 지금 행복하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in John Cook, compiler, *The Book of Positive Quotations* [1997], 7)

돈이 없어도, 깨끗한 피부를 갖지 못해도, 노벨 상을 받지 못해도, 행복하도록 마음 먹으십시오.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세상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행복합니까? 저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너무 잘 듣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아름다움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은 강들과 계곡들과 종달새의 소리를 기뻐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사랑,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넘어질 듯한 발걸음, 노인들의 현명하고 자상한 미소를 기뻐합니다.

그들은 정직한 노동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경전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성신의 임재하심을 기뻐합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도 빨리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벤치에 앉아서 여러분 곁을 지나가는 인생을 바라보며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한 가지 충고를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기꺼이 웃으십시오. 매튜 카울리(1897~1953) 장로가 처음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이 르우벤 클라크(1871~1961) 부대관장님이 그를 자신의 사무실에 초대해서 그의 새 부름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사상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대관장단의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 직위를 사임했습니다. 그분은 막중한 책임을 견디는데 오랜 동안 익숙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카울리 장로와 클라크 부대관장의 만남이 끝나 갈 무렵,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보게, 아들, [클라크 부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섯번째 규칙을 잊지 말게,” 카울리 장로가 질문했습니다. “여섯번째 규칙이 무엇입니까?” 클라크 부대관장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네.”라고 말했습니다. 카울리 장로가 물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 규

칙은 무엇입니까?” 클라크 부대관장은 “다른 규칙은 없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Matthew Cowley Speaks [1954], 132~33)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여겨서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찾기 위한 이러한 추구 속에서 가족, 직업, 교육을 저버립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네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네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데 여러분의 힘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여정을 추구해 갈 때, 여러분은 자신을 찾게 될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기쁜 놀라움을 느끼고 자랑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일 분이라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얼마 전에 저는 워스런 자매와 함께, 제가 선교 사업을 시작한 곳에 가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 임무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제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와드라도 만들 만큼 충분한 회원이 있는지 의아해 하며 자갈 덮인 거리를 걸었던 그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곳에 스테이크를 조직하려 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충실한 회원들을 바라보며 제가 거기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릴 때, 제 마음은 남다른 감회로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 그 일을 돌이켜 볼 때, 저는 그러한 시련과 외로움의 시간들이 저의 성품을 강화시키고 성공하겠다는 저의 소망을 증진시켜주는 도구가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분명한 실패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들 중에 일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장차 올 더 큰 것들에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곳에 있는 동안 저는 제 아내와 오번도르프를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저의 동반자와 제가 수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을 걸었

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산들과 작은 바라리언 마을의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움 앞에서,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제가 동반자에게 앞으로 결혼할 여자에 대해 설명했던 그 고요한 밤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오번도르프에서 그 거룩한 밤에 제가 했던 결심은 저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저를 인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배우고 성취할 것이 여전히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의로운 과업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즐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신성한 상속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들 때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의 제 선교 사업의 목적이 지금도 그때와 똑같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위대한 속죄를 주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요셉 스미스가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일에 지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임을 간증 드립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소망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께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화평과 기쁨을 찾으시기를 간구합니다. □

1999년 7월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밤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운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미소 지을
일도 많고 행복해 할
일도 많으며 웃을 일도
많습니다.**



함께 끌어 주며

데인 엠 멀린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



형들과 누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며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할 때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종교 교육은 그것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성장했으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 오시면서 종교적인 문제로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는 편이 낫다는 걸 발견하신 것 같았다.

나는 자녀들 가운데 막내였다. 형들과 누나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나를 잘 보살펴 주었다. 나는 모든 일이 항상 쉬울 것이라고 믿었다.

어린 시절 나의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성적은 떨어졌고 부모님들은 자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셨다. “데인을 어떻게 하면 좋지?”

부모님들은 내가 스스로 숙제를 하도록 애쓰셨지만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 선생님들, 상담 교사, 부모님 등이 벌을 주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지만 성적은 해마다 떨어졌다.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즈음 내 삶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그 해였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2주 후에 부모님은 별거에 들어가셨고 얼마 후, 이혼하셨다. 두 명의 형들과 누나는 학교를 졸업한 뒤 집을 떠났다. 집에는 어머니와 형인 리, 그리고 내가 남았다. 형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다. 설상 가상으로 우리는 재정적으로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어머니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하루는 어머니와 내가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교회에서 성장한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어머니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또한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면 학교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말일성도 친구들과 함께 몇 번 교회에 참석도 해보고 다른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연구 반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었다. 어머니는 이혼과 수입의 감소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내 문제로 어머니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 토론을 듣기로 했다.

어머니는 형도 함께 토론에 참석하기를 원하셨지만 형은 학교



활동에 빠져 있었다. 첫번째 토론을 마치고 난 후부터는 선교사가 방문할 때만 되면 형에게는 뭔가 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내가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자 일들이 잘 되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해 봄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학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

교회에 나가기 전에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었고, 어울리면 편한 아이들과 함께 다녔다. 그들은 대개 공부도 잘 못했고 나와 함께 자주 교실에 남아 별도 받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감독님과 접견을 했을 때 나는 침례를 받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혜의 말씀도 지켰다고 약속했다. 나는 신권을 소유하고, 성찬을 전달하고,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대신 잘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듣는 것이 좋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느낌은 내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간증을 전하면서 누가 진정으로 참된 친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형은 학교를 졸업하던 해 여름에 군에 입대했다. 그는 곧 향수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매일 집으로 편지를 썼으며 어머니는 형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셨다. 어머니는 형에게 그가 참석할 수 있는 말일성도 와드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그에게도 기도를 하라고 권유했다. 할머니는 형에게 졸업 선물로 성경을 주셨는데 형은 입대를 하면서 무슨 이유론가 그것을 짐에 함께 꾸렸다. 부대 안에서는 종교적인 서적 이외에는 읽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다. 형이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는 물문경을 한 권 보내 주셨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곧 형으로부터 경전을 재미있게 읽고 있으며 다른 병사들

에게도 큰소리로 읽어 준다는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물론 어머니는 더 우셨다. 어머니는 형에게 선교사와 공부를 하고 싶은지 물어 보았는데 형은 이미 감독님에게 토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형은 휴가를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어머니는 그때도 우셨다.

침례를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집사 정원회 회장과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학교 성적은 운동을 하도록 허락 받을 수 있을 만큼 올랐다. 전에 어울려 다니던 아이들과는 계속 친구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함께 어울려 다니지는 않는다. 우리의 사이는 여전히 좋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관심사는 다르다. 나는 상호 향상 모임에도 참여하지만 학교 공부에도 계속 열중하고 있다.

어머니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는 술, 담배를 모두 끊고 십일조를 내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구서의 금액들은 모두 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지난 여름에 성전에 가셨다. 작년에는 위독한 병에 걸려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두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선교사들이 어머니에게 축복을 해주었으며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끌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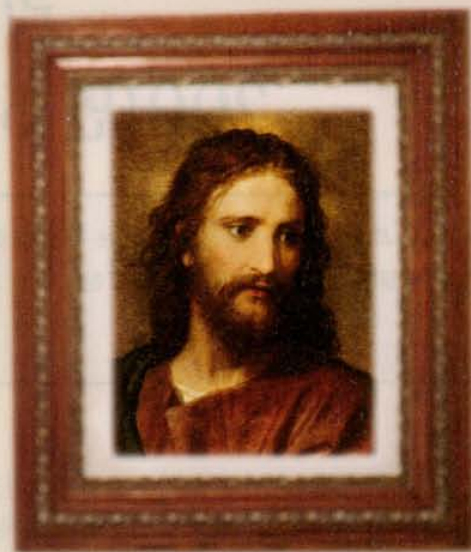
나와 어머니, 그리고 형에게 온 변화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이따금씩 우신다. 그러나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우시는 것이다. 물론 나도 행복하다. □

테인 엠 멀린은 아이다호 주 보이시 남 스테이크 보이시 제3와드 소속이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베키 프레스코트

벽에 걸린 그 그림을 올려다보기 전까지
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요일에 청녀 교실로 들어가면서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나라를 거의 가로지르다시피 하여 조그만 마을로 이사해 왔다. 새로 이사 온 지역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우리의 친척은 모두 수 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앉을 자리를 찾던 나는 두 번째 줄, 벽 옆에 자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의자에 앉으면서 나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옆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지나고 친구를 사귀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나는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러나 여러 번 스스로에게 타일러도 여전히 외로웠다.

공과를 반쯤 했을 때 나는 내 자리 바로 옆의 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구세주께서 공과 시간 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았다.

새로 이사 간 마을에서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나는 늘 구세주의 그림을 보았던 그 일요일을 기억하며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친구가 되실 것이다. □

베키 프레스코트는 유타 산타퀸 스테이크, 산타퀸 제1와드 회원이다.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활용하기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 가르침과 토론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 쪽의 숫자들은 이 호의 쪽 수를 나타냅니다. 친=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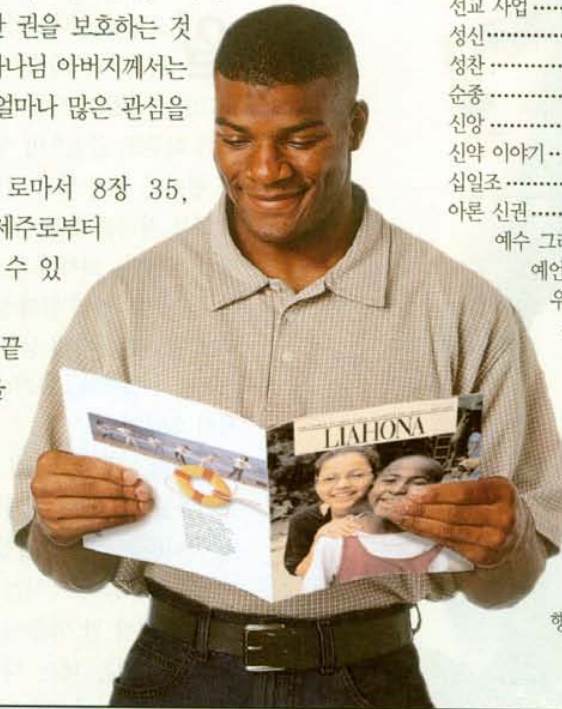
토론 제언

■ “주님의 등대”, 2쪽: 문슨 부대관장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장래를 계획하라고 제안했다. 가족이나 반원들에게 이 지상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표를 적게 한다. 적절하다면, 이 목표들을 서로 나누게 한다.

■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34쪽: 위스린 장로의 질문에 대해 말한다: “바닷물로부터 책 한 권을 보호하는 것이 하늘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생활과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 “변함없는 나의 친구”, 47쪽: 로마서 8장 35, 37~39절을 읽고,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 “포기하면 안돼”, 친7: 트레이시가 끝까지 간증을 전한 것이 그녀가 침례 받을 수 있는 허락을 얻어낸 것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호의 주제들

가정 복음 교육	7
가정의 밤	32, 48
가족 관계	23, 44
간증	친7
개종	26, 44
그리스도의 빛	18
멜기세덱 신권	뉴스
목표	2, 34
방문 교육	25
봉사	26
부름	34
브라질	10
사랑	23
선교 사업	친10
성신	18, 26
성찬	8, 친8
순종	24, 친2, 친4, 친8
신앙	2, 34
신약 이야기	친12, 친14
십일조	25
아론 신권	8, 뉴스
예수 그리스도	8, 47
예언자	14, 친2
우정	2, 47
우정 증진	10
이혼	26
인내	친7
일	34
장애	26
재정	25
죄	24
초등학교	친2
축복	26, 친2
침례	친7, 친8
행복	34

청소년 기사 응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말씀하신 6가지 “우”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받은 축복에 대한 기사 모집에 응모하시도록 청소년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2001년 4월호 리아호나 30~41쪽 참조) 기사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전자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성명, 주소, 전화번호, 와드와 스테이크 (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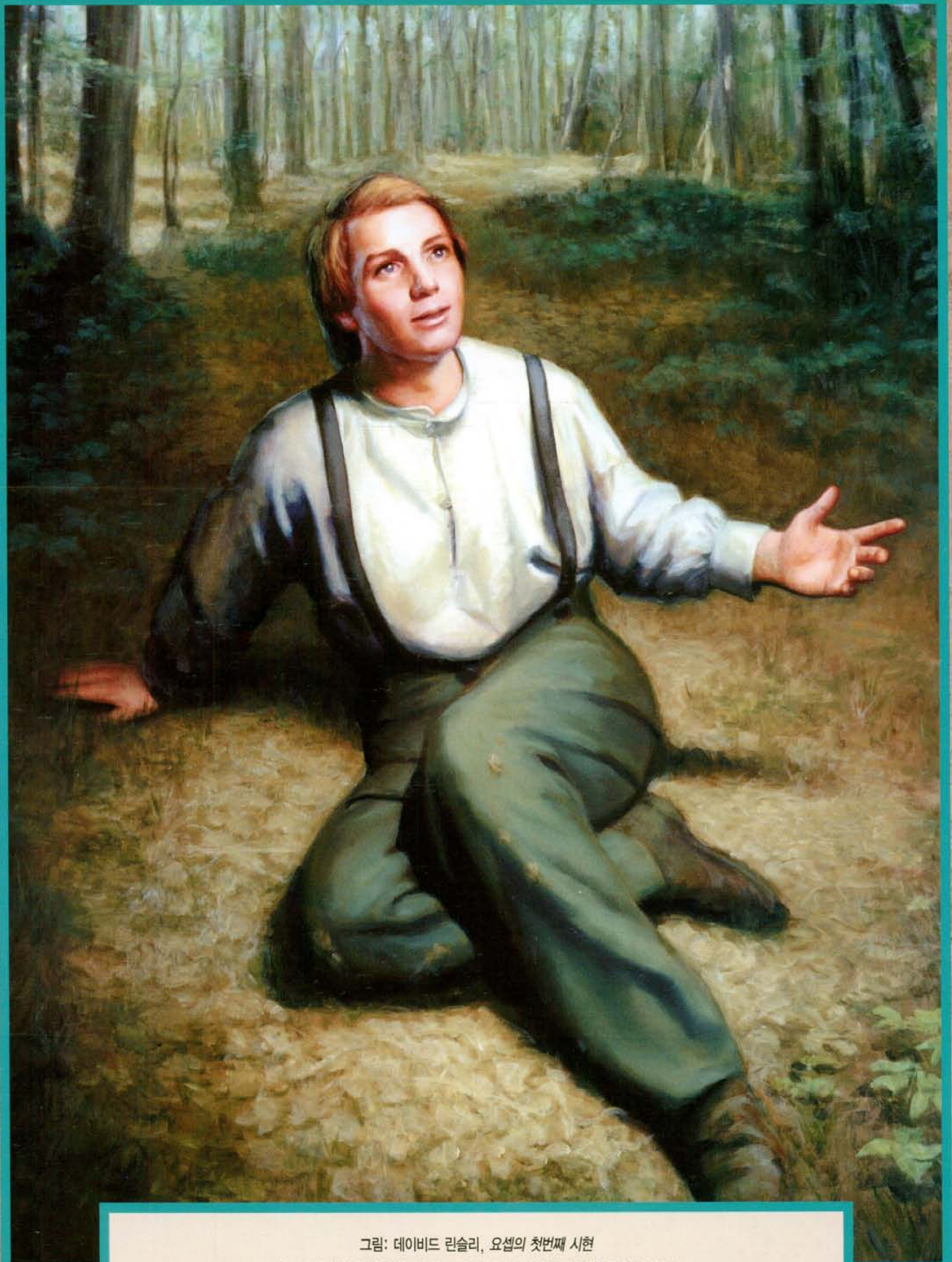


그림: 데이비드 린슬리, 요셉의 첫번째 시현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친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7)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청년들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교회 회원들에게 “그 분들께 손을
내밀시다! 그들과 친구가 됩시다! 또한
친절합시다! 그들을 격려합시다! 그들의
신앙과 주님의 사업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 줍시다!”라고 부탁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리우에서 내민 손길”, 10쪽 참조.



4 15219 85320 8

21985 320